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 창 조

발행일 2011년 5월 7일 (토)

발행인 성영관 편집 김종성

주 소 (700-821) 대구 중구 동산동 234

전 화 070-4095-6420

홈페이지 <http://creation21.or.kr>

## I 이달의 소식

- |   |    |
|---|----|
| 1. 모임안내                                 | 1쪽 |
| 2. 대구전시관 소식                             | 2쪽 |
| 3.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전시관<br>월간전자소식지 100호 축하메시지 | 3쪽 |

## II 내용

- |   |     |
|---|-----|
| 1. 노아의 홍수 (45) 홍수이전총 - 이재만                          | 5쪽  |
| 2. Victor's Bible Journey (24) 요셉가족의 이집트로의 이주 - 이종현 | 7쪽  |
| 3.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10) 성경적 세계관의 의미와 적용3 - 김무현          | 9쪽  |
| 4. 새로 바라본 그랜드캐니언 (28)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역                | 14쪽 |

## 인 사 말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소식지 1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100호에 이르기까지 수고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그동안 대구지부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아름다운 성장을 해 왔으며, 특히 2010년부터 창조과학 대구전시관을 개관하여 어린이들에게 실험 카페를 운영하는 등 어린 영혼들에게 창조교육을 시키는데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에는 대구지부 주관으로 태국 푸켓에 약 1주일간 창조과학 특별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불교국가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한국 교민 교회와 태국 교인들을 보고 특강하는 저희들이 함께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달 27-28일에는 한국창조과학회 30주년을 기념하곤 국제학술대회가 열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한국의 창조신앙 회복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대구지부가 대구 지역만 아니라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전시관장 신 동수 올림 -

## 1. 모임 안내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전시관에서는 공개세미나(매월 첫째 목요일)가 있습니다. 이 공개세미나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가지는 가운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공개세미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사: 김영철 교수(계명대학교 건축공학)

일시: 2011년 5월 12일(목) 7:30pm

장소: 창조과학회 대구전시관

내용: 시편기자의 계몽묘사

문의: ☎ 070-4095-6420



## 대구전시관 오시는 길



## 2. 창조과학회 대구전시관 소식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전시관에서는 지난 4월 7일(목) 오후 7시에 공개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길소희 간사가 “**공룡화석지로의 여행**”이란 제목으로 공룡에 대해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나눴습니다.

4월 3일(주일)엔 오랫동안 대구지부를 후원해온 동로교회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창조과학 특강(창세기 대홍수) 및 “인디언 석판 판화 찍기” 활동으로 전 지구적인 대홍수 사건을 깊이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9일(토)엔 주황색 조끼로 단체티를 입고 등장한 울산호계교회 초등부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조과학 실험카페 1.5차시 수업(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인체모형조립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이묘훈 선생님의 강연을 열심히 듣는 학생들의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답니다.^^\*

그리고 4월 30(토)엔 북구미구세군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카페 3.5차시(노아의 방주 강연 후 실물화석발굴 체험활동) 수업이 김범수, 송은영 선교사님(MI 국제교회 파송선교사)의 섬김과 더불어 감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실험카페 프로그램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 더 개발되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2.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전시관 월간전자소식지 100호 발간 축하메시지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와 전시관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정 병갑 (한국창조과학회 부회장 및 부산지부장, 고신대 생명과학부 교수)**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의 전자소식지 1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100호를 발간하기까지 열정적으로 활동하신 것에 대하여 한국창조과학회 회원들에게도 기뻐하겠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평소에도 대구지부의 활동을 보면서 지부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신 것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최신 자료를 번역하고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창조과학에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특강을 통해서 진화론을 타파하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전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을 통하여 창조론이 옳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은 본부에서는 물론 다른 지부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시행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열정을 가진 대구지부 회원들의 헌신으로 가능했을 것이고 대구지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와 창조과학 전시관이 대구 경북 지역의 창조신앙을 회복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 권 혁상 (한국창조과학회 부회장 겸 대전지부장, 카이스트 재료공학과 교수)



지난해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를 통하여 대구에 창조과학전시관을 열게 하시고 월간 창조과학소식지 100호를 발간하도록 역사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모든 것을 이뤄가고 있는 대구지부 지부장님과 회원님들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진화론은 성경과 복음의 기초가 되는 창세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최대무기이며, 21세기 과학만능시대에 과학이라는 위장을 하고 교육과 과학분야,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모든 사고 영역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교회로 들어 온지 100년도 안되어 영국 교회의 젊은이 와 청장년층이 교회를 떠나고, 그 결과 예배당들이 유지비가 부족하여 회교권에 팔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창조과학회를 통한 창조신앙회복운동이 한국교회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 더 많은 동역자들과 후원자들을 붙여 주셔서 전시관과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전시관 월간소식지를 통한 지부의 활동 영역이 더욱 힘차게 확대되기를 기원합니다.



## 2.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전시관 월간전자소식지 100호 발간 축하메시지



###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전시관 월간전자소식지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윤봉 (한국창조과학회 전북지부장, 전북대학교 교수, 세계 100대 과학자)

일백(100)이란 숫자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들 중에 백년가약(百年佳約), 백전백승(百戰百勝), 백발백중(百發百中) 등,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비영리기관에서 소식지 100호를 발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뚜렷한 비전과 사명이 없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대구지부에서 5월에 월간전자소식지 100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무너져 가고 있는 창조신앙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비전과 사명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우리는 21세기 첨단과학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과학의 발달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창조신앙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첨단과학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창조신앙을 바로 세우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조신앙 위에 구원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대형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십자가가 걸려 있는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마다 주일학교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던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교회로부터 발걸음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화론 교육으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이 희미하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내용들 때문에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창세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과학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주제별로 잘 정리하여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대구지부의 노고와 섬김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월간전자소식지를 통해서 대구/경북 지역의 많은 분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 홍수 이전층 (Pre-Flood Rocks)



## 창세기 셋째 날 땅과 홍수 때 땅

지질시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화석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선캄브리아대 (오랜연대설적 지구 나이로 주장되고 있는 46억 년 중 85% 이상을 차지하는 지질시대이다.)와 화석이 발견되는 나머지 지질시대(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눈다. 창조이야기를 통해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와 같은 지질시대(geological eras)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시간이라는 것은 누차 설명하였다. 즉 이러한 층들을 수직으로 모두 보여주는 곳은 지구상에 없으며, 몇 개만이 조각조각 보여줄 따름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조각조각 보여주는 퇴적층들의 아래는 반드시 선캄브리아기의 층과 만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화석을 간직하고 있던 퇴적암 밑에서는 화석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암석을 갑자기 만나는 것이다. 아래서부터 이야기 하자면, 화석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암석이 지속되다가 갑자기 그 상부에서는 화석을 간직하며 덮고 있는 퇴적암 층을 만나는 것이다. 이 화석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하부의 암석을 선캄브리아기 층이라고 부른다.

## 선캄브리아기 층의 특징을 보면

- 화석을 포함하는 모든 퇴적층의 “밑”에서 기반을 이룬다.
-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다.
- 덮고 있는 퇴적층과는 전혀 다르며 단단하고 압력과 열에 의한 변성(암석의 성질의 변화)을 많이 받았다. 그러므로 지질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차이점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많이 있으나,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층이 뚜렷이 구분되는 것은 지구상 어디서나 보여주는 공통된 특징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장 보편적인 특징을 진화론적 지질학자들은 그 이유조차 모른다.

성경에서는 땅(돌)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크게 두 번 있었음을 말해준다. 한 번은 창세기 셋째 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들어나라…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창 1:9, 10)” 때 만들어진 땅이다. 다른 한 번은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린(창 7:11)”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이다 죽었던(창 7:22)” 노아홍수 사건 때이다. 그러니까 노아홍수에는 기존에 창세기 셋째 날에 땅이 부서져 쌓여서 형성된 퇴적암이 형성되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 죽었던 생물들을 화석으로 간직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 창세기 1:9,10, 새번역**

**노아가 육백 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열이렛날, 바로 그 날에 땅 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 문들이 열려서 - 창세기 7:11, 새번역**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 창세기 7:22, 새번역**

반면에 셋째 날 만들어졌던 땅은 홍수 때 만들어진 모든 퇴적암의 기반을 이루어야 하며, 아직 생물을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화석을 포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있었던 것이 홍수동안에 받은 압력과 열 때문에 더욱 변성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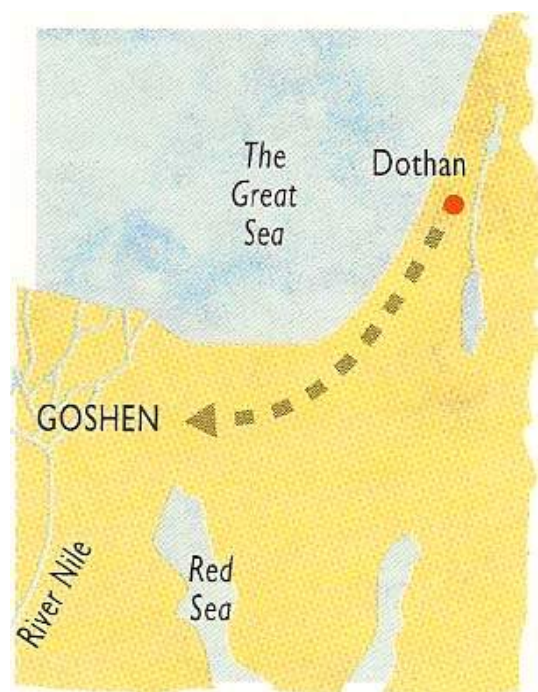
성경이 사실이라고 놓고 보면 위의 조건은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어디에서나 관찰되면서도 진화론적 지질학자들이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설명한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선캄브리아대 층을 “홍수 전 층 (Pre-flood rocks)”이라고 부르며 그 위에 쌓인 층을 “홍수 층(Flood rocks)”이라고 부른다. 바로 “홍수 전 층”은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땅의 흔적이고, 그 위의 “홍수 층”은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시대 때 창세기 대홍수 심판 동안에 형성된 땅을 말한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청났었는지 상상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셨던 땅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는 간절한 궁금증도 일어난다. 또한 이 저주하셨던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도 더해진다.

## 요셉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하다

### (Joseph's Family Moves To Egypt - Genesis chapters 45:16-47:31)

요셉은 젊었을 때 자기의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다.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 그를 사서 자기의 가정 일을 요셉에게 맡겼는데, 나중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고소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 거기서 요셉은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으며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나중에 바로에게 요셉에 관하여 말해 주었으며, 요셉은 바로를 위하여 두 개의 중요한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것은 다가오는 기근에 대한 경고였다.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웠으며, 기근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온 땅을 다스리도록 했다. 그때에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으며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드러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어 온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오도록 했다.



가나안으로부터, 이집트 북동쪽 구석에 있는 고센으로의 여정

#### 이집트 - 대조되는 삶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새로운 생활양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집트의 관습은 가나안의 관습과 매우 달랐으며, 풍경 역시 친숙하지 않았다. 이집트 땅의 경계를 건너면서, 야곱의 가족은 평평하고 황량한 땅을 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언덕이 있고 풀이 많은 계곡이 있는 가나안 땅과는 매우 대조적이었을 것이다. 작은 가나안의 마을들과는 대조적으로, 불규칙하게 뻗은 이집트의 창고-도시들은 분명히 경이롭고도 놀라웠을 것이다.

가족생활 역시 달랐다. 이집트의 여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 있으며, 남편의 대부분의 사회활동에 동행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것이 금지된 것이었다. 히브리 소년들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장사하는 것을 배운 반면, 이집트의 소년들은 4살 때부터 학교에 다녔으며, 서기관이나 정부 관리로서의 교육을 받았다.

## 히브리인 - 개화되지 않은 사회

이집트는 고도로 기술적이며 복잡한 사회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가나안 지역으로부터 온 외국인들을 미숙하고 뒤떨어진 사람들로 취급했다.

히브리인들은 턱수염을 길렀으며, 반면에 이집트인들은 수염을 말끔히 깎았다. 목동들의 정착되지 않은 생활이 이집트 남녀에게는 저속한 것이었다. 그들은 도시에 있는 집에 살며 세공인, 서기관, 혹은 관리로서의 일 배우기를 즐겼다. 이집트인들 사이에서는 음악과 미술이 유행하는 오락이었던 반면, 히브리인들은 자기들 장막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먹는 것을 즐겼다.

## 고센(Goshen)

이집트인들의 눈에는 야곱의 국적과 직업이 기분 나쁜 것이었으므로, 파라오는 야곱에게 자기 소유의 땅을 주어서 살도록 했다. 그 지역은 나일강 삼각주의 동쪽에 있었으며, 고센 땅이라고 불렸다. 그 곳은 그 지역을 적셔주는 강의 여러 지류 때문에 풍요로운 땅이었다.



이집트의 카이로 근처에 있는 피라미드

고센 땅은 이집트의 북동쪽 구석에 있다. 그 곳은 야곱의 카라반이 이집트 땅에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이었다. **창조**



## 성경적 세계관의 의미와 적용 3

### 3) 성경적 세계관의 결립들: 타협, 분리, 따로 신앙

마태복음 16:6에서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왜곡된 교리(바리새인은 계시된 진리를 율법주의로 둔갑시킨 자들이며,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극자유신학자들(extreme liberals)이었음) 외에도 형식(외식)주의에 젖어있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세속주의/타협주의에 안주하는 사두개인의 누룩과 같은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한편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2절) 너희 몸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1절)”고 명하셨습니다. 현실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그들만의 경건사회를 이루려했던 ‘옛세네파’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말씀으로 권고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 속에 속해있는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스위스의 유명한 크리스천 의사였던 폴 투르니에는 삶의 세 가지 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결국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물질주의자(materialist)의 삶이다. 그들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현실에만 몰두한다. 그냥 현실에서만 보다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가며,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다. 두 번째 삶의 방식이 있다. 그것은 신비주의자의 방식이다. 이 사람은 크리스천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현실이 없는 하나님추구의 길을 간다. 현실과 분리되어 하나님께만 몰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이다. 이것은 현실로부터의 도피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리얼리스트’다. 그것은 하나님과 현실을 똑같이 직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을 주셨다.”

현대사회는 무신론(진화론)과 인본주의(사람들이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음)와 진리의 상대주의를 표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시대정신을 이루고 있으며, 그 안에서 신앙인들은 갈등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진화론적 세계관, 세속주의, 배금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및 타락된 윤리의식들이 신앙인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과학/기술주의, 황금만능주의가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도 중요시되어 우상화 되어가고 있으며, 사람들의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예레미야 23:10)

*For the land is full of adulterers; For the land mourns because of the curse The pastures of the wilderness have dried up. Their course also is evil And their might is not right. - Jeremiah 23:10, NASB*

배금주의(맘몬주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위력 앞에서 다른 귀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돈이 생명보다도 귀중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한국이 IMF의 경영 하에 놓였을 때,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분위기로 온 국민이 엄청난 정신적 압박가운데 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심각하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윤리적, 도덕적 타락 현상에는 아무도 경제위기 때와 같은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가난해서 망한 나라는 없지만, 엄청난 도덕적 타락과 윤리의식 부재로 망한 나라는 많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대학교에서는 돈버는 것과 관계없어 보이는 강의는 아무도 강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폐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치체계가 어디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한편, 과학주의 또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된 우상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자연의 정복(환경파괴)과 그를 위한 기술 지배(또한 인간의 소외)를 필연적으로 잉태시켰고, 물질적 부요 라는 경제주의의 가속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과학주의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삭감해 버리고, 인간 그 자신의 힘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자만심의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과학(자연)주의는 초월자의 창조 및 주권을 철저히 배제하는 인본주의와 항상 보조를 같이 해 왔습니다.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이와 같이 전 학문과 전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인본주의 및 과학만능주의의 누룩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부정하거나 과학기술이 우리의 문명에 미친 긍정적 영향들을 경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과학적 방법론과 그 한계를 이해하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과, 그것의 발전이 우리의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영적인 문제들 및 가치들이 있다는 사실 등을 바르게 인식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과학주의(자연주의)나 이와 유사한 반성경적 사조들을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비판함으로써, 과학이나 학문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케플러와 같이 “과학이란 창조주의 그 놀라운 창조의 비밀과 섭리들을 알아 가는 것”이라는 자세로 과학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과학의 부산물이 인간이나 환경의 파괴에 쓰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질서 및 영광을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서 3:10)

이러한 과학-물질 만능시대의 시대정신 속에서 신앙인들은 방황하게 되고, 그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동 방식으로 타협(아예 세상방식으로 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분리(현실도피), 이원론적 태도(이중적 가치관으로 사는, 세상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의 따로 신앙) 등을 취하게 됩니다.

특히 이원론적인 태도는 우리나라의 신앙인들 사이에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이건 구원의 문제와는 관계없는 세상일이니 남들처럼 적당히 하자”는 식으로 스스로 정당화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8:21에 보면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자기의 편의대로 왔다갔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엘리야가 다음과 같이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사단이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열왕기상 18:21)

당신의 신앙과 생활방식은 어떠합니까? 따로 신앙의 요소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보다 철저한 성경적 세계관을 갖기 위하여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어떤 것들을 어떻게 고쳐 나아가야 할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그 동안 전통적 기독교는 현실문제와 사회문제, 그리고 학문과 문화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아예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였기 때문에, 진화론과 인본주의 정신 및 학문에 이 영역의 많은 부분을 내어주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자크 엘룰(Jacques Ellul)은 『뒤틀려진 기독교』(*The Subversion of Christianity*)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파합니다. “신도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만 보다 충성되고, 보다 진지한 기독교인이 되게 하려는 모든 노력은 헛수고이다. 영적 각성은 오직 세상과 관계되어 일어나는 운동이다.” 마찬가지로, 프랜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How Should We Then Live?*)라는 저서에서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이 반 성경적인 문화와 사회에 대하여 충분히 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사실을 비판받아야 한다. 교회가 분명하고 용기 있게 그러한 논제에 대하여 외쳐야 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5)

*We are destroying speculations and every lofty thing raised up against the knowledge of God, and we are taking every thought captive to the obedience of Christ, - 2 Corinthians 10:5, NASB*

그(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3)

*in whom ar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 Colossians 2:3, NASB*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8)

*See to it that no one takes you captive through philosophy and empty deception, according to the tradition of men, according to the elementary principles of the world, rather than according to Christ. - Colossians 2:8, NASB*

크리스천이 된다는 말 (즉 주님을 내 삶의 주인 (Lord)으로 영접한다는 신앙 고백)은 우리의 전인격과 전 생활의 영역이 예수님을 향하여 놓여진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 (Christ-centered mind)을 갖고, 성경적으로 조망되는 삶(Bible-controlled life)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지한 크리스천들은 과학, 문화,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전 생활과 사고 영역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정체감(identity)과 성경적 가치관을 소유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세상과 자신의 활동분야에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but the Spirit who is from God) 받았으니 (고린도전서 2:12상)

현대는 사르트르(Jean P. Sartre)가 말한 것처럼 “휴머니즘의 스트립쇼(strip show)”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나 짓고 배나 두드리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마태복음 25:21,23). 카이퍼(Abraham Kuyper)의 말처럼 “이 세상에서 그것은 내게 속하지 않았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영역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 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이사야 55:2)

## 요약(Summary)

성경적 세계관 모임의 핵심은 세계관/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우리의 가치세계와 이 세상에서의 삶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세계관은 바뀌지 않은 채 삶의 방식만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Legalism)요 인본주의(Humanism)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마음의 평화를 갈구하거나, 우리가 보는 세계 이상의 신비를 추구하며, 인간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시한 내용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육신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지 누군가로부터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이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우상은 피조물이므로 삶을 간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가끔 필요할 때 찾아가서 빌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사람들과 다름없는 ‘따로’ 신앙생활(신앙 따로 삶 따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과 진화론적 인본주의 세계관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세뇌를 당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일의 말씀 묵상과 삶에서의 영적 전투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이 매일 매일의 영적 전투와 거룩으로 나아감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worthless things)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renew my life according to your Word) (시편 119:37)

*Turn away my eyes from looking at vanity, And revive me in Your ways. - Psalm 119:37, NASB*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to my path. - Psalm 119:105, NASB*

출처 :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중에서 **창조**

# 그랜드캐니언 새로 바라보기

## 그랜드캐니언의 기반암

### (Grand Canyon - The Bedrock)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 골로새서 2:8, 개역개정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 시편 92:5, 개역개정

그랜드캐니언을 아래로 계속 여행하게 되면 결국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지점인 ‘기반암 (bedrock)’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가장 크고 가장 매력적인 급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위밖에 없는 지점에서는 삶의 여정과 많이 닮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랜드캐니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캐니언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세계관에 근본적인, 즉 신념체계의 기반암인 그들의 경험에 기초합니다. 만약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세계관을 생각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여기에 주어진 증거를 고려해 보라고 권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직접 모든 것을 평가해 보도록 장려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21에는 “**뭇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라고 쓰여있습니다. 여기서 읽은 것을 포함해서 당신이 듣거나 읽은 것에 대해 직접 그 사실을 평가해보지 않은 채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한 가지 예로, 암반용암지대(Scablands)와 ‘스포케인 범람’(Spokane Flood)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암반용암지대는 처음에 점진적이고 느린 침식의 산물로 여겨진 것으로 워싱턴 주 동부의 약 38,000평방킬로미터(15,000 평방마일) 면적이 깊게 파여진 협곡입니다. 하지만 1927년에, 브레츠(J Harlen Bretz)는 미국지질학회에 그 암반용암지대가 격변적으로 침식되었음을 주장하는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30년 동안, 브레츠는 그의 이론 때문에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56년에, 파디(J. T. Pardee)가 브레츠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 암반용암지대는 미줄라 호수(Lake Missoula)를 만들었던 빙하탐이 붕괴되어 형성된 ‘스포케인 범람’에 의해 격변적으로 침식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종합되었습니다. 그러나 1956년에, 파디(J. T. Pardee)가 브레츠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 암반용암지대는 미줄라 호수(Lake Missoula)를 만들었던 빙하담이 붕괴되어 형성된 ‘스포케인 범람’에 의해 격변적으로 침식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종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질학회에서는 그 범람으로 48시간 만에 2,000억방킬로미터(500억방마일)의 물이 방출되어 수백만 톤의 단단한 암석을 깎았다고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1979년엔, 브레즈에게 그의 연구에 대해 지질학계에서 가장 뛰어난 명예인 ‘영예의 메달’(Penrose Medal)이 수여되었습니다. 언젠가, 그 메달은 그랜드캐니언도 또한 일회적인 격변적 사건-아마도 전 세계적인 범람-의 결과였음을 밝힌 누군가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말이나 이론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며, 그의 말씀도 마찬 가지입니다. 성경 속의 어떠한 것도 잘못된 것으로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몇 번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타당성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 분야를 포함해서 사실임을 유지했습니다.

그랜드캐니언에 대한 한 가지 사실만 고려해 보십시오. 많은 퇴적층 사이에 사실상 물리적 침식이나 화학적 풍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지층들은 콜로라도대지 전체를 가로질러 너무나 평행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진화론자들은 이 층들이 콜로라도대지 전체가 아마도 7번 정도의 융기와 침강을 한 결과로서 많은 대양에 의해 퇴적되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각 지층의 표면이 다음 층이 퇴적되기 전에 수백만 년 동안 노출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출된 표면이 시루떡처럼 평편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여겨집니까? 아무런 특징도 없는 방대한 면적의 지형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지층은 전지구적 대홍수의 결과로 보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고서 여전히 ‘이것은 다 어리석은 것들이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또한 성경에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3-4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8에서는, “**십자가의 도[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믿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귀가 간지럽습니까?

정말로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느 책을 믿을 것입니까? 사람에게 의해 씌어진 대학교과서인가요 아니면 전지하시고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 씌어진 성경책인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자 하는 세상의 방법들에 대해 명백히 경고하고 있는 골로새서 2:8 말씀도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암석층은 장관일 정도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서점 내의 책이나 다른 품목에서 그것들을 다룬 것들을 발견한다고 놀랄 일도 아닙니다.

커피 테이블용 책이나 달력에 그랜드캐니언 사진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라는 이사야 40:28 말씀과 같이 적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 가장자리를 따라 여기에서 보여주는 큰뿔양의 사진처럼 동물사진도 또한 그러한 ‘창조’ 구절과 함께 종종 실립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히 협곡이든 양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천지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 주간 6일 동안에 만들었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출애굽기 20:11). 그러나 비록 그것의 조상 종류의 첫 번째 전형이 그렇긴 하지만, 사진 속의 양은 명백히 그 때 만들어 진 것이 아닙니다. 무한히 지적인 설계자가 그것들이 ‘지구에 번성해서 충만하도록,’ 즉 ‘그 종류대로’ 생산하도록 하는 프로그램화된 분자기계를 포함해서 매우 복잡한 생물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양도 결국 원래의 창조적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축적된 유전자 복제실수(돌연변이)에 의해 훼손된 조상종류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부분집합만을 함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캐니언도 또한 암석을 마모하는 유체의 ‘자연적’ 과정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간에 다른 것들을 만드신 측면에서 그것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렇게 두드러지는 6일에 창조된 지질학적 구조가 무엇이든지 간에, 창세기 대홍수와 잇달아 형성된 빙하기에 의해 일어난 것과 같이 연관된 격변적인 엄청난 힘이 그것들을 파괴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랜드캐니언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발견되는 수조 개의(trillions) 유해를 함유하고 있는 1,500미터 두께의 퇴적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명백합니다.

그랜드캐니언을 포함한 오늘날의 협곡들은 하나님의 창조적 설계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늘의 심판으로부터 나온 힘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캐니언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숙고할 때, 극단적으로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정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니며, 적어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모습은 아닙니다. 지질학적이든 생물학적이든 간에, 그것의 모든 양상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저주에 의해 훼손되었습니다(창세기 3, 로마서 8:19-22). 이러한 만물의 변화는 역사적인 실재 인간인 아담에 의한 역사적인 실재 반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실재적이고 역사적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도록 시공간의 실재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이든지 그랜드캐니언이든지 간에 그것의 진정한 궁극적 메시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 요한  
복음 1:25, 개역개정 **참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http://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creation@creation21.or.kr](mailto:creation@creation21.or.kr))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